東友會報

發行人 鄭 在 哲
編輯人 尹 天 泳
印刷人 李 揆 行

發 行 人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 窓 會
直通 (267)8568
交換 (267)8131～9
非 賣 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宜增進과 母校發展에 키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自發的참여로 前進意志 새롭게

「東國人의밤」12月18日 앰배서더서

友情의 광장…많은 參席 기대

금년으로 10회째 祝賀牌 수여등 多彩로와

京鄕各地에 흩어진 東國人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東國의 熱氣를뿜어낼「東國人의 밤」금년도행사가 오는12월18일(金) 오후6시 앰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금년으로 10회째를 맞고있는 同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東國人들의 참여가 높아져 명실공히 진하디 진한 母校意識과同門의식을 다져가고있다。

지나온 한해를 총결산하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和合과 단결로 東國發展에 흔쾌히 同參할것을 다짐하는 同행사는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전5부로 나누어 제1부는 開會宣言및 새해결의문채택, 제2부 東國을빛내준 同門에대한 祝賀牌수여, 제3부 送年파티, 제4부 長技자랑, 제5부 幸運券추첨순으로 다채롭게 펼쳐지게된다。

◇「東國人의밤」행사에 참석, 시간가는줄을 모르고 再會의 기쁨을 나누는 前年度행사모습。

정체상태에서 活動하는동창회로, 단절상태에서 서로 연결되는 동창회로의 이미지쇄신을 위해 지난 72년 「호수그릴」에서 첫모임을 가졌던 同행사는 매년거르는일이없이 六萬동국인에게 영원한 마음의 고향「東國」을 되찾게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본회에서는 축하대상자엄선·본공로표창자 擴大, 푸짐한 幸運상품준비, 동문연예인초청의 흥겨운 장기자랑등 보다 짜임새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축하대상자 선정은 본회축하자 선정 규정에의거, ①정부기관에서 理事官級이상(군장성포함), 또는 국영기업체및 각급 공공단체(私企業體는 종업원 2백명이상)의 임원 취임·榮進者 ②정부로부터 각종훈장 포상者 ③교육자로서 각급학교장에 승진·취임한者 ④국내외에서 박사학위취득者 ⑤국회의원및 이에준하는 각직위에 당선된자 ⑥본부임원·단위東友會임원·사무국요원으로 본회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⑦우수단위조직체 ⑧기타東國의 명예를 크게 빛내어서 회장단회의 승인을 얻은자를 표창자로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열거한 축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①해외근무등으로 본인이 직접수령할수 없을 경우 ②유사한 내용으로 1인이 1회이상 수상하지 못한다는 원칙아래 금명간 축하대상자를 확정, 개별통보케된다。이와함께 본회는 각급단위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각급 단위임원과 본회발전에 공이 많은 동문을 다수표창할 계획을 세우고있다。이날행사에서는 또 送舊迎新의 새해결의문채택을 통해 동국발전을 염원하는 전동국인의 굳은 다짐을 재천명하게된다。

한편 이날회비는 東國人들이 부담없이 한자리에모여 구수한정담과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즐길수있도록 예년과같은 5천원이상으로 정했다。

1부·開會宣言

전5부로나누어 갖게될 이번행사의 제1부는 3인조 밴드의 모교교가주악으로 開會선언을 갖게된다。이어鄭在哲회장의 人事、鄭在覺모교총장의 축사、경과보고가있게되며 萬古成長東國人像을 정립하기위한 새해결의문채택으로 1부순서를 마치게된다。

2부·祝賀牌수여

제2부는 東國을 빛내준 동문과 우수同友會및 모범동문에게 祝賀牌및 功勞牌를 수여, 치하하게된다。

3부·送年파티

제3부는 3인조 밴드의 주악으로 연회분위기를 돋군뒤 會長團과 現·前總長 財團임원등이 대표로 나와 「東國中興」이 새겨진 대형 自祝케이크를 커트함으로써 칵테일파티의 막이오르게 된다。

4부·長技자랑

제4부 장기자랑은 동문연예인의 사회로 미리 신청된 접수순대로 노래·코메디등을 겨루어 푸짐한 시상품의 주인을 찾게된다。

5부·幸運券추첨

매년「東國人의 밤」행사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있는 제5부 행운권 추첨순서는「행운의 주인은 누구냐」는 관심으로 연회분위기가 고조된다。

예상상품은 3백여점。

단체別 참여환영

서로돕고, 서로 이끌고, 서로 빛내기위해 東國人은 늘 모여야한다。東國人이면 누구나 참가할수있는 이행사에 모두참가, 友情의 악수를 나누며 굳은 결속의지를 꽃피워나가자。

한편 참가자 전원에게는 모교 카렌다 1부씩을 배부할것을 모교측과 협의중에 있다。

카나다서 體育基金 모금

“他海外지부 귀감되길”바라

在카나다東友會(회장=金鍾斗)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모교운동부 육성기금조성운동을 벌여 10월말현재 1천2백60弗(한화 약73만원)을 모금, 금명간 送金할 의사를 밝혀왔다。

이와같은 소식은 카나다동우회 고문 千允基(51경제)동문이 11월23일 본회尹天泳사무국장 앞으로 편지를 띄워알려왔는데, 千동문은『이러한 조그만 성의가 모교발전을 기원하는他지역 海外동문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면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만리 타국에 있는해외東友會가 모교를 사랑하는 만큼 모교도 눈부신발전을 거듭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인 千동문은 同基金은 당초운동부 육성을위해 모금되었다고 거듭강조했다。

이와관련 본회는 同기금을 접수하기위해 회장단및 모교측과 상의한뒤 기금명목을 회신할 방침이다。

한편 동회는 지난10월말 한일은행 토론토사무소장대리로 부임한 李殷甲(74경영)동문을위한 성대한 환영연을 베풀어 동우애를나눴다고 소식을덧붙여왔다。

會 告

이번호부터「東友漫評」連載

重鎭작가 鄭雲耕동문 執筆

本報는 이번호(65호)부터3面에 鄭雲耕(本名=光億)동문의「東友漫評」을 連載합니다。

重鎭氣銳의 작가 鄭雲耕동문이 펼쳐나갈「東友漫評」은 東國발전을 염원하는 大經·大路의 典型으로써 여러 동문들과 호흡을 같이할 것입니다。

◇鄭 동문

“東國投影에 最善”

작가 鄭雲耕동문은 대한일보(67~71년) 경향신문(71~74년)을거쳐 지난74년부터 中央日報에 왈순아지매와 中央漫評을발표해오고있어 이미 우리와는낯익은 사이입니다。

『漫評은 언어의 집약이며 寸鐵살인의 풍자가 있어야 한다』고 흔쾌히 집필을 맡아준 鄭雲耕동문의 건투를 빕니다。

東國大學校同窓會

全東國人과 가족에게 30%할인!
최신의료시설·정예의료진·최선의 시술
동국병원
서울·도봉구 수유동 45~5
전화(981)4883~4、8817~8

自動車보험
安國火災 代理店
保證보험
각종보험상담은
世宇 開發
261—1763
267—3495·4453

東國人에 客室料30%할인!

代表理事會長
洪正烈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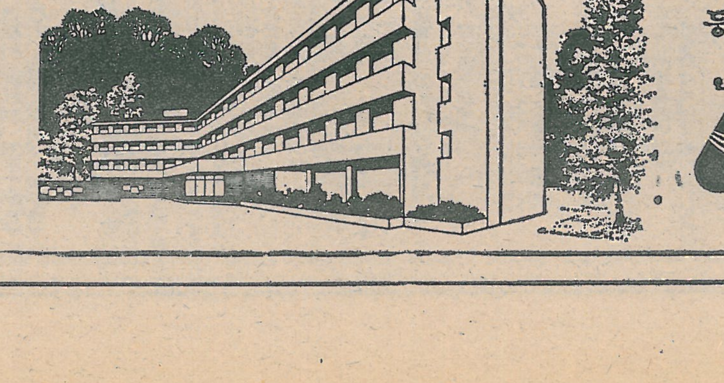
專務理事
閔慶鳳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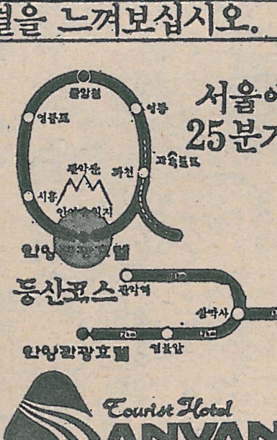
理事·總支配人
李裕寬동문

안양관광호텔 개관!

서울근교의 안양 유원지에서 대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1급규모 안양관광호텔은 도시의 공해와 소음을 떠난 관악산 계곡의 푸른 자연속에 자리하였읍니다.
1급호텔 규모로 개관하는 안양관광호텔은 지하 200m 암반에서 솟아오르는 청석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객실에 비데오 시스템을 갖춰 안락한 시간을 즐기실 수 있읍니다.
최고의 숙박시설과 편리한 부대시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끼리, 연인끼리 잠시 서울을 떠나 부담없이 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서울에서 25분거리

Tourist Hotel ANYANG
안양시 석수동 241-14
Tel.:(1343)3-8111/20

격조높은 분위기에서 최상의 서어비스를…

커피숍「코이」
자연 폭포수 아래 자리한 코이는 다정한 연인을 즐거움의 경지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레스토랑「해브」
정통파 양식과 4계절의 진미가 넘치는 부페요리, 특히 안양관광호텔이 새롭게 개발한 산채지 요리와 융통받은 여러분의 미각을 돋구어 드릴 것입니다.
부페 런치/12:00~3:00(토·일요일)
디너/18:00~22:00(평일)

방켓 홀「해피」
300석 규모의 대 연회장은 각종 격조높은 대·소파티를 물론 결혼, 약혼, 회갑잔치등에도 적격입니다.

칵테일 라운지「메이슨」
관악의 경치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메이슨, 국내 1급 바텐더의 칵테일은 맛과 멋이 조화된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나이트클럽「매자닌」
국내 정상급 밴드와 가수진의 표거운 연기와 함께 매혹의 밤을 즐기십시오.

기타 부대시설로 하절기 수영장과 토산품점 등을 갖추고 여러분을 안락하게 모실것을 약속합니다.

청석수 안양관광호텔의 지하 200m 암반에서 솟아오르는 천연약수 청석수는 여러분의 건강과 미의 활력소가 될것입니다.

東友提言

東國魂 일깨워 自強意志 높이자

金 喜 午(64政外·본회상무이사·崇田大교수)

이땅에 佛敎가 전래된지 1533년이되는 1906년5월8일 東國은 創學됐다。

그러니까 1905년11월7일을사보호조약으로 國權을 박탈당한지 만6개월이 되는 날에 불교정신에 입각한 진리의 규명과傳授를 創學理念으로 하여 東國이 건화된것이다。

「眞理探究」、「人格陶冶」같은대학의 목적은 독일의 실존철학자 「카알·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에서 부터 보편화된내용이다。

그러나 東國의 創學理念은 불교정신에 입각한다는 점에서 바로 우리의 시대성과 공간성에비추어 찬연한 불교전통의 호국사상에대한 발로라고봐야할것이다。

나라잃은 백성의 한은 韓民族主義의 제2단계에서 식민통치에의 저항과 主權回復을 위한「敎國衷情」으로 이글거리고 있을때 東國은 조국의 光明燈을 높이들고 이땅에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에 東國에는「東國魂」이 있고 이나라 民族私學의 「敎育魂」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앞에 도래된다 할지라도 동국혼은 선양돼야 한다。아무리 험난한역사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동국의 創學정신인 호국의 의지로 결연히 응전해야 한다。

이것이 곧 不退精進의 理想속에담긴 東國의 사명이요 끊임없는 발전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프랑스의 實存哲學者「마르셀」이 밝힌바와같이『人間의 생명체는 유한인데 그 욕망은 무한하다』는데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았지만、有限生命體에서 우러나오는 무한의 욕망으로 東國발전은 이뤄져야하고、또 나는 東國의이력을 언젠가는 가야할 나의무덤까지 가지고간다는 素朴한 마음에서 東國발전을위한 몇가지 構想을 提言으로 엮는다。

대학발전은 ①주체적조건 ②객관적조건 ③제도적조건이라는 3가지 조건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첫째 主體的條件은 質的인 要件으로서 人的要因인 ①大學運營陣 ②敎授 ③學生을 말한다。

먼저 대학운영진으로서의 財閥이나 學事行政의 責任者는 意識化된 姿勢의 確立위에서 學事行政에 對한 모든 意思를 충분히 이해하고 協力함으로써 方向設定의 참모습을 찾을수있다。運營者에게서 대학발전에대한 概念-見解가 定立될때、모든 慧智와 역량을 모아 대학발전 계획을 短期·中期·長期의 3단계로 나눠 靑寫眞을 만들어 이를 공포하고 모든 東國人에게 公約化 해야 한다。

또한 학교예산은 학사발전을위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교수의연구비지급、국제교류활성화에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하고 교수연구결과에대하여 관련된 학회나 기관등에 미루지말고 이를격려하고 포상하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이러한문제는 質的향상의 측면에서볼때 학교의명예는물론 弘報문제도 부수적인사항으로 해결될것이며 학생문제는 자동적으로 향상될것이다。

따라서 학내인사문제는 上下向式 조정을통하여 철저를 기해야 한다。萬의 하나라도 대학에있어서 補職에 戀戀한다면 學事기본적인 面에서볼때 발전에대한 存亡之秋가 따르게된다。

◇金동문

두번째로 客體的條件이다。이는 量的인 要件으로서 현대사회와 대학의 대형화추세에 비추어 구조물·시설물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된다。장기적인 안목에서 본교·분교의 구조물(建物·講堂等) 시설물(研究室·圖書館等)의 적정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산업사회의 병폐를 예방하는 교육환경조성은 대학이 안고있는 특수성과 전통을 승계하는데 역점을두고 學風振作과 정서순화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세번째로 제도적조건이다。이는 質的인 요건으로서 대학운영의장치가 어떠한 종류의 사회운영장치보다도 龜鑑되는 기본으로 다뤄져야한다。

學科諸規定을 비롯한 제반의 운영계획등이 明鏡같아야 제도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졸업생 취업대상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구상과 적극성을 보임으로서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능력 계발뿐만이 아니라 사회·국가가 바라는 전문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기능을 완수하게 될것이다。

현주소

전국 中高재직동문 名單

〈敎職동문찾기운동 回信 도착분〉

◇서 울◇

◇대경중·상고
▲한우진(49문학)=高교사
▲신영철(61국문)=中교사
▲신상호(62국문)=〃
▲전대길(63경영)=高교사
▲장세화(63상학)=〃
▲김용우(60경제)=中교사
▲정호옹(67경영)=高교사
▲박청평(69사화)=중교사
▲박환웅(81수교)=高교사
▲함상화(73영문)=〃
◇동대부중
▲정판규(63불교)=교사
▲오수산(66상학)=〃
▲진종택(62영문)=〃
▲최철웅(62수학)=〃
▲한성규(69물리)=〃
▲박명순(68불교)=〃
▲이만(74불교)=〃
▲박상(77국교)=〃
▲박일영(73국교)=〃
▲안명수(75〃)=〃
▲조혜선(77영문)=〃
▲홍영희(77사교)=〃
▲조성구(78수교)=〃
▲안병주(79과교)=〃
▲이재심(79불교)=〃
▲홍병모(80체교)=〃
◇동대부고
▲李光載(43불교)=교장
▲金在鎬(58불교)=교사
▲金元植(61정치)=〃
▲金鳳式(65불교)=〃
▲尹錫鎬(62국문)=〃
▲崔孝軾(71사학)=〃
▲鄭甲東(73영문)=〃
▲金相淑(76大國)=〃
▲韓百彦(74국교)=〃
▲文津桓(74국교)=〃
▲金時炯(76수교)=〃
◇문일여고
▲崔健煥(73국교)=〃
▲曺孝鉉(75국교)=〃
▲李仁根(76〃)=〃
◇명성여중
▲張靑篠(64화학)=〃
▲姜福永(66불교)=〃
▲李春臣(69수학)=교사
▲徐仲寬(68국문)=〃
▲閔庚煥(71불교)=〃
▲趙哲九(72수학)=〃
▲金泰元(77체교)=〃
▲金容彪(78불교)=〃
▲朴長玉(80수학)=〃
▲李春浩(80국교)=〃
▲韓在洙(77수교)=〃
▲池慶龍(77체교)=〃
▲崔相洛(73국교)=교사
▲申南烈(64수학)=〃
▲李庠宰(80국사)=〃
▲朴省三(74국문)=〃
▲玄順子(68국문)=〃
▲金敬男(72국문)=〃
▲韓始燕(76가정)=〃
▲金明姬(76가정)=〃
▲李愛淑(77가정)=〃
▲朴壬洵(76국교)=교사
▲吳淑伊(77체교)=〃
▲尹惠英(77국교)=〃
▲朴貞玉(77국교)=〃
▲金容仙(77사교)=〃
▲金華實(78수학)=〃
▲張京淑(80가정)=〃
▲朴壽鍾(80교육)=〃
▲貢布乙(81불교)=〃
▲金斗鎰(79농생)=〃
◇명성여고
▲金寬性(48혜전)=교장
▲丁탁鎭(58수학)=교사
▲李昇熙(63국문)=교사
▲南宮圭(65수학)=〃
▲金淑香(69영문)=〃
▲尹辰雄(70수학)=〃
▲崔成烈(72불교)=〃
▲董時泳(74국문)=〃
▲禹夏秀(62영문)=〃
▲李元珠(65불교)=〃
▲金俊經(66〃)=〃
▲張在烈(70영문)=〃
▲李龍浩(72수학)=교사
▲姜文善(74불교)=〃
▲吳澤源(77국문)=〃
◇송곡여중
▲李忠模(60법학)=교사
▲李台珪(80국문)=〃
▲崔惠植(77가교)=〃
▲李英鍾(73물리)=〃
▲韓圭錫(78국문)=〃
▲李愛鍾(73국교)=〃
◇진선여중
▲김두생(76불교)=교사
▲이병무(72영문)=〃
▲고병원(76체교)=〃
▲김응화(77과교)=〃
▲김영애(70국문)=〃
▲손철익(77사교)=〃
▲이해동(75과교)=〃
▲마숙현(75국문)=〃
▲신동제(75인철)=교사
▲신재춘(77법학)=〃
▲천낙열(76국어)=〃
◇협성여상
▲윤동섭(61사학)=부교장
▲이회천(65사학)=교감
▲신용균(64법학)=교사
▲김의성(65법학)=〃
▲김덕영(65행정)=〃
▲이주영(72사학)=〃
▲이기운(74수교)=교사
▲반의환(75영문)=〃
▲임화순(70영문)=〃

◇경 기◇

〈의정부시〉
◇경민여상고
▲李純姬(70수학)=교사
▲李珉熙(74수학)=〃
▲鄭나비나(77사교)=〃
▲權匡植(78영문)=〃
◇광동여고
▲金永善(79생물)=교사
◇의정부고
▲金麟圭(56정치)=교감
〈성남시〉
◇성남여고
▲尹明福(64국문)=교사
▲張胤鎭(63영문)=〃
〈안양시〉
◇근명여중상고
▲崔寬福(66국문)=교감
▲韓圭熹(67경제)=교사
▲韓明植(61사학)=〃
▲文貞順(72국문)=〃
◇신성중고
▲鄭東華(49문학)=교장
▲丁銀九(63정치)=교사
▲崔昌洙(58영문)=〃
▲丁 權(77수교)=〃
◇안양공고
▲金壽卿(61경제)=교사
▲崔炳植(64불교)=〃
▲金信中(64정치)=〃
▲李海島(65국문)=〃
◇안양여고
▲元鍾晃(71정치)=〃
▲朴魯勳(76사교)=교사
◇양명고교
▲김낙삼(60화학)=교사
▲김광웅(72영문)=〃
▲박세영(75농생)=〃
▲안효선(77국교)=〃
▲황상하(81국문)=〃
〈고양군〉
◇일산종합고
▲曺圭億(64사학)=교사
▲金東出(63상학)=교사
▲趙義九(74수학)=〃
▲白賢淑(76국문)=〃
▲李云周(79수학)=〃
〈광주군〉
◇광주종합고
▲延昌綉(63농학)=교사
▲姜信國(65농학)=〃
▲崔炳楠(69농화)=〃
〈김포군〉
◇통진종합고
▲權五鳳(64농학)=교사
▲朴畯弘(75국문)=〃
〈남양주군〉
◇퇴계원중
▲李章杰(62사학)=교사
▲金榮極(75수교)=〃
▲具景會(76수교)=〃
〈동두천시〉
◇동두천종합고
▲姜泰弘(56경제)=교사
▲金興云(60사학)=〃
▲申晋澈(64영문)=〃
▲許 鎭(71식공)=〃
〈양주시〉
◇양주고교
▲羅榮燮(63화학)=교사
〈양평군〉
◇국수중·고
▲金銀姬(80수학)=교사
▲宋敎全(80수교)=교사
◇양동중
▲呂寅榮(60법학)=〃
◇양서종합고
▲金欄成(80수학)=〃
◇청운중·고
▲姜錫鎬(61정치)=교사
▲朴熙國(66경제)=〃
▲丁昌洙(76사교)=〃
〈여주군〉
◇대신중고
▲宋泳煥(73국문)=교사
◇여강중상고
▲金東寅(57경제)=교사
▲金炳鍾(61영문)=〃
▲韓相七(65국문)=〃
▲安貞九(77과교)=〃
◇여주女綜高
▲曺正萬(71상학)=〃
〈연천군〉
◇전곡고교
▲柳益相(66영문)=교사
▲張元哲(68식공)=〃
▲姜性模(77체교)=〃
〈옹진군〉
◇대청고교
▲金章秀(60영문)=〃
〈용인군〉
◇송전농고
▲柳熙烈(64농학)=교사
▲李列洙(70식공)=〃
▲李貞馥(81수교)=〃
〈이천군〉
◇경남종합고
▲金勝三(65경영)=〃
◇마장상고
▲申德均(63영문)=〃
◇이천농고
▲申榮先(65임학)=〃
▲金東浩(67농학)=〃
▲李載鎬(69농학)=〃
▲金泰東(70농학)=〃
▲崔知福(71농학)=〃
▲李九玉(80영문)=〃
◇양정여중고
▲金閔煥(67농학)=교장
▲徐興源(60국문)=교사
▲田敬完(64경제)=〃
▲李宜鎬(71임화)=교사
▲趙泰熙(74국문)=교사
▲우종심(80수교)=〃
▲정경자(81국문)=〃
〈파주군〉
◇광탄상고
▲文鍾成(80농경)=〃
▲安鉉福(80교육)=〃
◇문산동중
▲張豪基(63국문)=교감
◇문산북중고
▲金鍾敏(65법학)=교사
▲成演錫(75통계)=교사
▲柳文洙(67국문)=〃
▲李相勳(79인철)=〃
◇문산종합고
▲崔京로(60농학)=〃
▲金昌培(64농학)=〃
▲金文中(65국문)=〃
▲鄭昌善(70임학)=〃
◇율곡종합고
▲李承熙(72정치)=〃
◇파주공고
▲孔徽植(80전자)=교사
〈평택군〉
◇태광종합고
▲高英基(77과교)=교사
▲吳英禮(80국문)=〃
◇평택고교
▲宋大鏞(65법학)=〃
◇평택동중고
▲鄭柄華(59생물)=〃
▲吳師根(70정치)=교사
▲韓東允(71농경)=〃
▲崔在吉(76수학)=〃
▲柳英淵(76국교)=〃
▲張翼善(78물리)=〃
◇한광고교
▲李喆浩(61법학)=〃
▲李琪玉(70국문)=〃
▲宋錫範(75수학)=〃
▲韓相國(77사교)=〃
▲金奉圭(77국문)=교사
◇평택종합여고
▲具滋東(61경제)=〃
▲趙基喆(77수학)=〃

東國大學校

各大學院 八二年度 前期新入生을 다음과같이 募集함

大學院(碩士課程 博士課程)

電話(直) (261)3256

一、募集課程및專攻
가、碩士課程
佛敎學科、哲學科、印度哲學科、國語國文學科、英語英文學科、史學科、演劇映畫學科、敎育學科、法學科、政治學科、行政學科、警察行政學科、經濟學科、經營學科、農業經濟學科、地理學科、電子計算學科、會計學科、數學科、物理學科、化學科、應用生物學科、統計學科、農學科、林學科、電子工學科、電氣工學科、土木工學科、建築工學科、化學工學科、食品工學科、工業經營學科、體育學科、家政學科
나、博士課程
佛敎學科、哲學科、國語國文學科、英語英文學科、史學科、敎育學科、法學科、政治學科、行政學科、經濟學科、經營學科、農業經濟學科、數學科、物理學科、化學科、應用生物學科、農學科、林學科、食品工學科、電子工學科、土木工學科、建築工學科、化學工學科
二、試驗科目…（碩士…專攻、英語、面接 博士…專攻、英語、面接）
三、願書交付…一九八一年十一月十日~十一月二十日(金)까지
四、願書接受…一九八一年十一月十六日~十一月二十日(金)까지
五、銓衡日時및場所…一九八一年十一月二十八日(土)午前十時 本大學院

行政大學院(男女夜間)

電話(直) (267)8574

一、募集課程및專攻=行政大學院碩士課程및研究課程
①行政學科…組織管理、人事行政、財務行政、計劃行政、都市行政、開發行政 各專攻
②安保行政學科…公安行政、國防行政、防衛産業、軍事戰略各專攻
③安全管理學科…安全管理專攻
二、願書交付및接受…一九八一年十一月十六日~十一月二十七日(금)까지
三、銓衡日時및場所…一九八一年十一月二十八日(土)오후二時 本行政大學院
四、銓衡方法…書類銓衡및面接
五、特典…①公務員(軍警敎員포함) 全員에게 奬學金支給
②安全管理學科지망생으로서 소속부대장 또는 재향군인회장이 추천한자는 碩士研究共히 등록금의50%면제함
③優等奬學金·總長奬學金·동문회장학금등 各種의 奬學特典이있음
※자매학교인 美國의 이스턴와싱턴대학연수및 행정학세미나에참가할기회있음

經營大學院(男女夜間)

電話(直) (267)8140

一、募集課程및專攻…碩士및 研究課程 人事勞使管理·生産管理·財務稅務會計·市場管理·貿易學·電子情報處理·證券分析·不動産學·各專攻약간명
二、銓衡方法…書類전형·口頭시험및 면접
三、願書交付및接受…一九八一年十一月十八日(水)~十一月二十六日(木)까지
四、銓衡日時및場所…一九八一年十一月二十八日(土)午後二時 本경영大學院
五、特典…①電子情報處理(B·P·S)및 生産管理專攻은 本校의 컴퓨터센터를 利用할수있음
②不動産學專攻者로서 碩士學位取得者는 土地評價士免許試驗應試資格이 賦與됨
③公務員·敎職員및 女學生全員에 대하여 授業料의 半額을 免除함

敎育大學院(男女夜間)

電話(直) (269)8052

一、募集課程및專攻…敎育學碩士課程·研究課程
①敎育行政學科…敎育行政·敎育經營·敎育財政
②敎科敎育學科…國語敎育·地理敎育·歷史敎育·數學敎育·倫理敎育·美術敎育·漢文敎育·英語敎育·體育敎育
二、願書交付및接受…一九八一年十一月一八日~十一月二六日一七時
三、銓衡日時및場所…一九八一年十一月二八日(土)一四時 本院敎務課
四、銓衡方法…書類銓衡및 口述面接
五、特典…①公·私立敎職員·公務員에게 修了時까지 授業料의 半額을 支給하며 各種 奬學金 特典이 있음
②敎師昇進과 資格證을 받음
※詳細한것은 各大學院敎務課에 문의할것 電話 (267)8131~9(交)

年末年始 총회열어 內實 다지자

會費단체 납부 아쉬워
회원 移動 알려주도록

本會산하單位조직의 活性化가 절실히 요청되고있다. 현재 본회가 파악하고있는 각급單位는 지역별49、직장별75、學科·同期別61、친목·직능별 40개등 총2백25개 동우회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조직의 量的인 팽창과는달리 각급단위가 內實을 기하지못하고 有名無實해지고있어 총동창회운영에도 적지않은차질을 빚고있다. 본회는 우선 각급단위 재건책의 하나로 年末年始를 맞아 12月이나 1月에 직장、지역、학과·동기、친목·직능별로 총회를 열도록 적극 권장、당부에 나섰다.

본회는 무엇보다도 2백25개에달하는 단위조직을 바탕으로 東國人의 단결력을 과시해온것이 사실이다. 그가운데서도 개교70주년기념 장학기금모금운동、지방순회 학술강연회지원 東國人의밤 성황등은 손꼽을만한 단위조직활용의 성공 케이스였다.

本會는 單位活性化를위해 年2회이상 공문을 보내 각단위별조직 內實化에 적극 협조해줄것을 당부했다. 뿐만아니라 각급 單位의 모임이 있을 경우 회장단에서、또는사무국에서 직접 나가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바쁜 사회생활、경기침체등의요인도 있겠지만 절반이상의 單位들이 성의부족으로 활동이 뜸해지고 있다. 즉 단위조직이 명분을 가질수있는「이슈」가 없는것이문제가되고있다.

단위조직의 活性化는 회원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발전에 기여한다는 본회 기본취지에 부합되는데서 더욱절실하다. 그것은 동문끼리 자주 모임으로써 이해가 증진되고 또 동문의식을 높이게됨은 自明하다.

현재 本會는 單位조직 活性化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있으며、1차로 각급단위에서는 年末年始 총회를 열어 會내실은물론 회원이동사항을 정확히파악해줄것을 바라고있다.

이와함께 본회활동의밑반침이되는 동문들의 年會費 단체납부도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年會費등의 솔선납부를 위해 기존 우편대체구좌(번호525669)운영외에 은행 온라인구좌를개설했다.

「惠東會」로 改名

49년·52년모임 發起時 임원추인

지난달 49년전문부및 52년화부출신 친목모임으로 발기되었던 혜동구락부가「惠東會」로 개칭、임원인준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지난 10월22일 오후6시 신흥사 풍년각에서 崔載九동문등 30여명의 동기생이 모인가운데 열린 총회는 발기대표인 李喜春동문의 경과보고겸 인사말에이어 안건토의를 벌였다.

안건토의에서 회원들은 먼저 회명을「惠東會」로개칭할것을 동의하고 발기시선출된 회장단을 정식임원으로 추인하는 한편 순수한 동기모임으로 발전시키기위해 임원중 고문단을 빼기로 가결했다.

졸업후 30여년간만에 결성되는 모임인만큼 훈훈한 東友愛가 넘쳐난 이날모임은 학창정담、근황교환、장기자랑등으로 동기생끼리오랫만에 즐거운 시간을보내는 자리가되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재미 金斗煥(韓·美정치협회이사장)회원이 일시 모국방문길에 자리를 함께하고 모교발전을 위해 私財를바칠용의가 있다는 자신의구상을 피력、회원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했다.

한편 同會는 정기모임을 每月13日 하이얏트 호텔에서 갖기로하고 구제적인내용은 회장단에서 통보키로했다.

▲회장=李喜春(하이얏트호텔사장)
▲부회장=兪賢穆 王豹淳 池昌勳
▲상무이사=孫銖洙。

惠門會

12月12日忘年모임

惠門會(회장=金長好)정기총회겸 송년회가 오는12월12일(土)오후3시 시내관철동「남강」에서열린다.

혜화전문출신 친목모임으로 경조사 상부상조및 높은참석률을 자랑하는 同會는 지난51년에창립되어 30여년째 변함없는 우정의가교역이 되고있다.

東綠會망년모임 12月20日개최키로

東綠會(회장=鄭在哲)정례친선골프경기가 지난11월1일 유성컨츄리클럽에서열려 회원상호간의유대를 더욱공고히했다.

25명의회원이 참석한 이날친선경기에서는 우승에李殷載、2위崔載九、3위金東益 메달리스트 朴根永 행운상은 金在基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同會는 이날모임에서 망년회행사를오는 12월20일(日)오전8시 한양컨추리에서 경기를 가진다음 오후6시 신라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연회를 개최키로했다.

牙山體典 성공리 마쳐

임원개선도 회장에 李德潤동문

牙山郡동우회(회장=蔡道秉)주최 제14회 아산군직장대항 배구대회및 제7회 테니스대회가 지난11月1日 온양온천국민학교운동장에서 성대히 베풀어졌다.

郡守·경찰서장·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各기관장과 선수·동문등 2백여명이 참가한 이번대회에서는 배구에 영인국민학교、테니스에 순천향대학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牙山郡동우회가 지역사회에 東國의 얼을심고、나아가 직장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주기 위해 매년 빠짐없이 개최해 오고있는 同大會는 명실상부한 郡民잔치로 뿌리를 내리고있다.

한편 이날 행사를 마친 동문들은 定期總會겸 체전평가회를 갖고 새임원진구성과함께 會內實化에 적극 同參할것을 결의했다.

▲회장=李德潤(49전문·덕산중)
▲부회장=李河永(57농학·농촌지도소)、姜泰鳳(68식공·금마운수)
▲총무=김석환(72경제·온양읍사무소)

李昇武동문

경주대에 1백만원

◇李동문

李昇武(66농경)동문이 지난9월23일 경주대에 장학금으로 1백만원을 희사했다.

평소 慶州동우회 육성과 모교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李동문은 이 장학금을 전달하면서『경주에서 새로운 모교후배들의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지원할 계획』임을밝히기도.

國會 定總열어

간부취임에 祝賀牌수여

국회동우회(회장=金殷夏)제6회 정기총회가 지난4일 정오 9명의 의원을 비롯 회원26명이 참석한가운데 국회구내 귀빈식당에서 열려 各職취임축하패수여 경과보고 회칙검토등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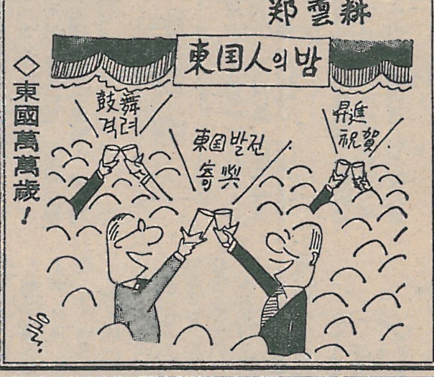
李鎭相간사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신입회원(4명)소개에이어 金殷夏부의장 李範俊농수산위원장 黃明秀의정동우회장 鄭在哲예결위원장등에게 각각 취임축하패를 수여、축하했다.

이날 회의는 또 鄭俊和부회장의 경과보고가 있은다음 회칙중 회계年度를「11月1日부터 익년10月31日까지」로 改正하기로 했다.

한편 신입회원은 金德經(79경행·김은하부의장실비서관) 金宗鉉(법학4년·감사계장) 鄭炳國(73철학·권익현의원비서관) 崔有惇(77철학·유인범의원비서관)동문등이다.

東友漫評

郑雲綝


東国人의 밤
鼓舞 격려
東国발전 寄與
昇進 祝賀
◇東國萬萬歲!

警行科선후배의 밤

會員명부 配布

警察行政學科學우회(회장 李璜雨)임시총회겸「先後輩의 밤」이 지난10월 31일 오후5시 母校 茶香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의 제1부는 임시총회순서로「장학기금」조성등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이어제2부에서는「先後輩의 對話」「期別 장기자랑」등이 열려 선후배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다.

한편 이날모임에서는 새로 발행된 회원명부를 회원들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東女會 입회식

桂山館 1周 自祝겸해

東女會입회식겸 桂山館개관1주년기념식이 지난18일 오후3시 모교계산관에서있었다.

모교 吳國根학생처장 李永子여학생감과 東女會 金貞愛회장 朴桂山후원회장을 비롯 禹順伊 朴賢嬉 金政子부회장등 30여명의 동문및 졸업예정자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이날 입회식은 吳학생처장과 尹天泳본부사무국장의 축사、졸업생대표의 入會신고、김정애회장의 환영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자축다과회를 열어 앞으로 선후배간의 우의를 두텁게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선후배대화」 마련

政治學徒축제열어

제2회「政治學徒의축제」가 지난10월30·31일 양일간에 걸쳐「학술토론대회」「선후배의 대화」「정치학도의밤」순서로베풀어졌다.

이번축제의 제1부는 지난30일 학생 세미나실에서「제3세계와한국」「현대정치와 정당」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대회를 열었으며、제2부는 31일 쌍용빌딩18층 라운지에서「선후배간의 대화」시간을 마련、격의없는 대화를통해 정치인의역할、정치과동창회결성등 진취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제3부는「정치학도의밤」순서로노래및 장기자랑、행운권추첨등을가졌다.

모임活性化 논의

商銀지회、새方案 모색

한국상업은행동우회(회장=許文秀)정기총회가 지난13일오후7시 퇴계로4가 대림정에서열려 會활성화를위한 제반운영사항을 논의하였다. 20여명의 회원이참석한 이날모임에서 許회장을 대리하여 李圭浩同門이『한직장의 동국인이라는 공동체의식으로 자신과 모교발전을위해 더욱분발하자』고 인사했다. 이어 朴南圭간사장으로부터 경과보고및 회비수납보고와 아울러 협조요망사항이 있었으며 白幸昇간사의 회무보고순으로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회비수납문제를 비롯 각종 경조사에 보다적극적으로 협조해줄것등이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體育科도 모임

內實化대책등 논의

體育教育科동우회(회장=이광우)임시총회가 지난10月25日 모교체육관에서 열려 친목강화등 조직내실화방안을 논의했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同학과의 명실상부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오는 12月20日경 다시 모임을 가져 주소록제작、會기금마련등 구체적인 발전책을 채택키로 했다.

알림

제10회「東國人의 밤」개최

12月18日(금) 앰버서더호텔

모두함께 送舊迎新 결의
상호알려 많은 參席있길

全東國人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東國人의밤」(동국을 빛내준 同門축하및 송년회)행사가 금년으로 1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날으는 새도 날이 저물면 제집을 찾아든다』는 말 그대로 京鄕각지동문들이 운집、해를 거듭할수록 재회의 열기가 가득한「東國人의 밤」행사가 금년에는 12월18일(金)오후6시 앰버서더에서 열리게 됩니다.

東國人이면 누구나 참석할수 있는 이행사가 성황을 이루어 모교발전을 위한 送舊迎親의 결의를 더욱 굳게합시다.

▲日時=1981年12月18日(金)오후6시
▲場所=앰배서더호텔2층 대연회장
▲會費=5천원以上

※個人別 또는 각급 單位別로 幸運상품 1點이상씩을 協贊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것은 本會 사무국(267-85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一九八一年十二月 日

東國大學校 同窓會
會長 鄭在哲

勤勞獎學舍 기금조성 결의

自救策강구, 各期別 간사중심으로

勤勞獎學舍동우회(회장=李信澈)임시총회가 10월27日 모교다향관에서열려 후배장학기금조성에박차를가하기로 결의했다.

회원40여명이 참석한이날 모임에서는 宋錫球(모교교수)회원의 철학박사학위취득을축하하는 표창패수여에 이어 기금조성의 구체적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원들은『근로장학사의 명맥을 살리기 위해 기금조성은 불가피하다』고 입을모으고 회원1인당 2만원씩(2회분납)을 갹출키로하는 한편、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期別간사 5명을 선임했다.

각기별간사는 劉鍾熙(61~64년)、尹天泳(65~68년)、방병무(69~71년)、李愚允(72~74년)、吳政錫(75~79년)、김세곤(78~81년) 동문등이다.

救農體典마쳐

회원우의증진기여

救農동우회(회장=沈載益)주최、구농가족체육대회가지난10월18일(日)모교체육관에서 회원및가족、재학생등 1백50명이 참가한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회원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구농의식함양을 위해 지난78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동체육대회는 이날 4회째를 맞아 지·덕·노·체 4팀으로 나누어 농구 줄다리기 가족게임등을 즐겼다.

경기가 끝난뒤 회원들은 다과회로 상부상조하는 救農정신을 재확인 한뒤 행운권추첨·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한편 이날 대회를 위해 백해옥(카셋트테이프) 성찬경(파이롯트 文具) 김덕현(미숫가루) 이종철(에이프런) 정문환(화장품) 최진주·신아강(크리넥스) 고인호(광고) 신은철(페넌트) 동문등이 각각 행운상품 또는 기념품을 협찬했다.

陳宗龜회원祝賀會

東靑會員우의다져

東靑會(회장=金正雄)11월례회겸 陳宗龜(朝興銀行춘천지점장)회원 榮進祝賀會가 지난7일오후2시 시내南京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했다.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陳동문의 榮進기쁨을 함께나누며 同會발전방안등을 모색하며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宋熙鍾동문 歡送겸

商友會 임시회열려

商友會(회장=朴時賢)임시총회겸 宋熙鍾회원의 美이민환송연이 지난10월24일 오후3시 시내 K음식점에서 열렸다.

20여명의 회원이모여 변함없는 우정을 다짐한 이날 모임은 宋회원의 성공을 기원하는 축배와 학창정담으로 즐거운 시간을보냈다.

崔桂良동문

본회들러 近況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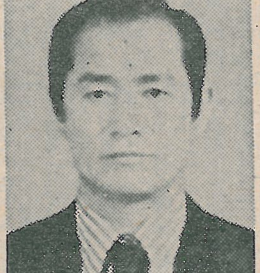
카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崔桂良(51史學·女)동문이 그리스인 夫君과 함께 지난 11월12일 본회 사무국에 들러 近況을알려왔다.

지난 11월10~13일까지롯데호텔에서 1백9개국 8백50여명의 碩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세계과학자대회에 참석차 일시 귀국한 崔동문은『30여년만에 와본 모교 발전상이 놀랍기만하다』고 학창시절을회상했다.

본회 尹天泳사무국장의안내로 총장실을 예방하기도한 崔동문은『夫君이 현재 츄렌트大 철학교수로 佛教에 관심이 높다』면서 역경원·박물관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안내책자를 구하기도했다.

崔동문은 그리스 아테네大에서 考古學을 전공한뒤 다시 풀브라이트장학금으로 美인디아나大學에서 스칼러쉽을 밟았으며、현재 카나다에 정착해오고있다.

國會 議政同友會長 黃明秀 동문



◇군소정당과 무소속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議政同友會長으로 더욱바빠진 黃동문。

黃明秀(53정치) 동문이 지난10月부터 국회원내교섭단체인 議政同友會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民正·民韓·국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과 무소속의원들의 원내세력인 議政同友會의 회장을 맡은 黃동문은『비록 16명밖에 안되지만 똘똘뭉쳐 국민의 참된의사를 반영하는 막강한 교섭단체로 이끌겠다』고 다짐한다。

“국민의 참된 意思반영에 노력”

정력적이고 부지런한 再選의원

정치인은 국민의「입」인동시에「귀」가 되어야하는 자리。黃동문은 늘「안테나」를 높여 국민여론을 들으며 정치인의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는다고 털어놓는다。

평소 정력적이고 부지런하다는 평을 듣고있는 黃동문이 지난 3月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금메달을 따낼수있었던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뒷얘기。

또 겸손하면서도 호탕하고 바른말 잘한다고 알려진黃동문은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인내력도 갖추고 있다。

지난 9대때 신민당공천으로 天安·天原·牙山지구에서 당선、국회에 진출한 黃동문은 신민당 원내부총무등으로 원내교섭단체와는 인연이 깊다。

10대를 쉬고 11대에 또 당선、再選의원이 된 黃동문은 지난 76년부터 지난 81년 5月 定總前까지 본회 부회장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同門動靜

〈無順·敬稱略〉

人의 近況이나 주
門들의 諸소식등
으시면 언제든지
바랍니다。

◇內務部

▲金在淵(70행원)=경기도 제2부지사에서 경기도지사 특별보좌관으로 職名이 변경됨。金동문은 내무부 민방위국장 仁川시장 충남부지사등을 역임했다。

◇治安本部

◇金 동문

◇李 동문

▲金鉉植(57사학·서울市警정보2과 2계장)=總警승진 예정。동부서 및 중부경찰서 정보과장등을 역임했다。

▲李鍾範(63법학·서울시경경무과공보계장)=총경승진예정。63년경찰간부15기로경찰에투신、서울시경산하 남부·동부·남대문서의 수사·경무과장등을 역임했으며、내무부장관표창등 표창경력도 다수。

▲曺聖彬(64법학·치안본부 외사과)=總警승진예정。치안본부정보1과등 본부통으로 大統領표창 등을 받았다。

▲金炯淸(70행정·경찰대학)=경정승진시험에 합격。

▲朴禹信(68경행·경찰대학)=경정승진시험에 합격。

▲金瑞榮(73경행·치안본부감찰계)=경정승진시험에 합격。

▲金忠男(70행정·서울시경)=경정승진시험에합격。

◇專賣廳

▲金圭泰(63정외)=전주지청장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으로 영전。

◇法務部

▲康鼎九(51사학)=金州교도소장으로 전임。馬山·金泉교도소장으로 在所者의 改過遷善 교화에 앞장서오고 있다。

장으로。

▲黃容學(59법학)=세무지도과 조사계장으로

▲金容宜(60국문)=기획관리실(올림픽준비요원)로

▲李英珪(62법학)=동작구 사무관으로

▲元成澤(61법학)=강동구 사무관으로

▲李光玉(65임학)=공원녹지과 조경계장으로

▲金秀元(59국문)=종합건설본부 사무관으로。

▲趙南天(65임학)=영등포구녹지과장으로。

高校長으로 平生을 教育봉사

金泉女高교장 李憲永동문
知禮高校교장 金成坤동문

◇李 동문

◇金 동문

▲李憲永(43·혜전)=金泉女高교장으로 영전。金泉·金陵동우회장을 2回나 역임한바 있는 李동문은 상주女中교장 성주여고교장등 40여년간을교직에 봉직해 오고 있다。

▲金成坤(54·경제)=金陵郡 지례고교장으로부임。金동문은 30여년간을 교육일선에서 후진양성에 몸바쳐오고 있다。

라이프通商 사장에취임

金東煥동문

▲金東煥(59 경제) 동문이 라이프주택

동화증권 小公洞지점장으로

具滋慶동문

具滋慶(60영문) 동문이 동화증권 소공동지점장으로 부임、발탁되었다。국일증권 강남·한강지점장등 이미 證券社일선 점포 책임자의 캐리어를 갖고있는具동문은 경제흐름에 대한 두뇌판단이 빠르고 업무처리에도 치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제관광공사 홍보부장부임

鄭溶동문

◇鄭 동문

鄭溶(61정치) 동문이 지난달 국제관광공사홍보부장에 부임했다。지난64년에 입사、근20여년가까이 同공사에 봉직하면서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해온 鄭동문은 총무과장、홍보과장、김포영업소장등을 역임했다。鄭동문은『관광산업의 진흥개발로 한국의참모습을 內外로 널리홍보하는일에 보람을 찾겠다』고 피력。

한국JC 31代회장에 被選

李弘卿동문

◇李 동문

李弘卿(66·상학) 동문이 한국青年회의소(JC) 제31대회장에 당선되었다。

서울JC 80년도 세계대회 유치사무총

경찰직에 봉직해오고 있다。緣條근정훈장을 받은 金동문은 순수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엘리트로 對民봉사와 사회질서확립에 앞장서오고 있는데 지난 77년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바있기도 하다。

서울大서 農博학위취득

趙炳默동문

◇趙 동문

趙炳默(66임학·강원대임산가공학과조교수)동문이 지난8月末 서울대후기학위수여식에서 農學博士학위를 취득했다。

趙동문은 지난76년부터 5년6개월동안 서울대에서 연구활동을 펴왔는데 학위취득논문은 산소·알칼리蒸解의 脫리그닌에 관한 動力學的 분석」。

趙동문은 모교및 상지대등에서도 강의를 맡기도했다。

「教育學 학술상」수상자로

朴先榮동문

◇朴 동문

朴先榮(65불교·모교사범대교수)가 저서「佛教의 教育思想」으로 81년도韓國教育學會학술상을받았다。

지난10월16일 강원도 강원大에서 총회를가진 教育聯總이 同학술상 심사위원회를구성、심사결과 朴동문에게 수여키로결정한것이다。

한편 72년에 제정、매년 실시하고있는 同학술상은 吳天錫·韓基彦·金在恩·孫仁銖·丁淳睦·金鍾喆씨등이 수상한바 있으며 朴동문은 7번째수상자이다。

현대문학추천받아文壇데뷔

吳貞亞동문

吳貞亞(70국문·성수中)동문이「현대문학」추천을 받아 소설가로 문단에 데뷔했다。

지난 5월및 11월호「현대문학」지에「木角숫사슴」「겨울아이」등 단편소설이추천작으로 선정되어 文人이된 吳동문은졸업후 계속 교직에 몸담아오면서 창작활동에 몰두해왔다。

教授動靜

▲趙熙榮(총무처장·경상대)=BAAD장학재단 초청으로 지난11일 渡獨、西獨각大學및 금융계를 시찰하고 11월21일귀국。

▲金鎭轍(법정대)=11월12일 한국政治學會 총회에 참석、「국제관계이론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란 제목의 연구발표를가짐。

▲金興培(농학과)교수=오는 29일부터 12월4일까지 美國조지아주 아틀란타市에서 열리는 미국作物學會에서「소맥의 분지성 유전」이라는 논문발표를 위해 25일 出國예정。

만 필리핀등 동남아 섬유시장을 돌려보고 귀국。

▲朴忠一(62법학·신흥인쇄(주)사장)=9월18~25일까지 1주일간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표단으로 동경에서 열린 국제인쇄기자재 전시회를 참관한뒤 日本인쇄계를 시찰하고 귀국。

▲宣진圭(59불교·대한佛青회장)=지난 17~22일까지 워싱턴에서열린 在美불교청년회 창립기념법회에 참석차 출국。宣동문은 법회참석후 뉴욕원각사、달마사、LA의 관음사、하와이의 대원사등을 순방하게된다。

▲鄭寬溶(58법학·中央選管委사무처장)=8개정당간부 동남아시찰단장으로 2주간 대만 태국 印尼 日本등의 정당제도를 시찰하고 귀국。

▲金銅原(64경제·중앙종합건축대표)=지난11월17일 3주간예정으로 업무추진차 사우디아라비아로 向發。

▲宋永和(65 법학)·金政子(65 법학)=지난11월24일 美國移民次 출국。

結婚

▲金遺腹(51정치·국회의원)=10월27일 오후1시 반포성당에서 次男 화촉。

▲朴養源(48혜전·金馬物産사장)=11월9일 오전11시 종로예식장에서 長女화촉。

▲許文秀(57경제·상업은행 역전지점장)=11월11일오전11시 서울YWCA에서 長女화촉。

▲朴忠一(62법학·信興印刷사장)=장녀와 李潤鎬(78경행·모교法政大조교)동문이 12월14일 오후1시 종로예식장에서 화촉예정。

▲睦鎭夏(50전문·극동컨츄리)=11월23일 정오 영락교회에서 三男결혼。

▲楊貞圭(52경제)=10월31일 오후3시 서교동 청기와예식장에서 장녀화촉。

▲禹順伊(59정치·대영산업사장)=11월1일 영빈관에서 장녀화촉。

▲崔在熙(79경원·광주공원묘원대표)=11월7일 오후1시 시내성동구용답동명륜예식장에서 2男화촉。

▲安秉郁(75土木·世一실업공예과代理)=12월8일 낮 12시반 서교동 규수당예식장에서 本人 화촉。

▲金相龍(71경영·삼원상사대표)=11월4일 정오 崔載九명예회장 주례로 서교동 규수당예식장에서 本人결혼。

▲趙昌基(75법학·고려인삼대표)=11월15日 오후3시 신혼예식장에서本人결혼。

▲南相均(79경제·상업은행청계지점)=11월8일 오후1시 北岳스카이호텔옆 귀빈예식장에서 본인결혼。

▲具善謨(76경영)·崔明淑(76가교)=11월17일 오전11시 LCI예식장에서 화촉、부부동문 탄생。

其他近況

▲洪鳳來(53법학·본회 부회장·동양금속공업(주)사장)=지난10월25일 부터 2주일간 신병치료차 서울대학 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고 퇴원。

▲成正基(51정치·前풍천화섬(주)사장)=신병치료차 중앙대성심병원에 3개월동안 입원했다가 지난10월말 퇴원。

萬古成長 東國人 발전

國會副議長 金殷夏 〈52정치〉
國會議政同友會長 黃明秀 〈53법학〉
國會豫決委員長 鄭在哲 〈52정치〉
國會農水產委員長 李範俊 〈80행석〉
國會議員 趙炳鳳 〈67대석〉
國會議員 李榮一 〈73행석〉
國會議員 梁昶植 〈77행석〉
國會議員 李憲琦 〈前 모교교수〉
國會議員

◇法務部

▲康鼎九(51사학)=全州교도소장으로 전임。馬山·金泉교도소장으로 在所者의 改過遷善 교화에 앞장서오고 있다。

◇文教部

▲李元植(50전문·全北道교위부교육감)=부교육감제 폐지에 따라 全北道교위정책연구팀요원으로 발령됨

▲朴炳용(59법학)=부산대 사무국장에서 문교부본부발령(국방대학원入校예정)

▲韓榮錫(61정치)=대학제도과장에서체육국 국제경기과장으로 轉任。

◇動力資源部

◇金동문

▲金泰坤(65행정)=鑛務局(舊석탄국)국장으로 전임。지난65년 官界에 진출、주로 석탄정책의 실무를 맡아온 金동문은 動資部 자원개발국장·감사관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韓 賢(70행정)=에너지관리과장으로 전임。국세청에서 動資部로 자리를 옮겨 탄정계장·행정관리관등을 역임한 韓동문은 지난 3월~9월까지 6개월간 美뉴욕주립대학에서 行政연수를 받고온바있다。

◇海運港灣廳

▲金光得(62법학)=선원선박 국장으로 영전。부산관리청 해무국장、본청재무국장(職代)등을 거친뒤 국방대학원을 수료했다。

◇遞信部

▲崔章和(60경제)=공보관에서 운영국지도과장으로 轉任。

◇朴동문

▲朴永煥(49전문)=용산전화국장에서 서울시외전화국장으로 전임。56년대전전화국 서무과장으로체신부에 발을딛어 光化門전화국장、체신부공무기획과장등을 역임했으며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서울特別市

▲姜炳壽(57정치)=공원녹지국장에서환경녹지국장으로 職名이 변경됨。

▲鄭 喆(57정치)=종로구재무국장으로

▲宋仁憲(58경제)=은평구 도시정비국

同門動靜

<無順·敬稱略>

本人의 近況이나 위同門들의 諸소식이있으시면 언제든 提報바랍니다。

그룹社인 라이프 통상(주) 사장에 취임했다。

金동문은 라이프그룹의 창업멤버로 各부서를 거쳐 同부사장으로 활약해왔었다。

◇朝興銀行

▲林昌祜(56경제)=국제부 조사역으로 轉任。국제업무 베테랑인 林동문은 국제부대리·과장·차장을 거쳐 홍콩사무소장등을 역임했다。

◇李동문

▲李正煥(62경제)=서울 放鶴洞간이예금취급소개설준비위원장으로 榮進。FO DE동우회장을 맡고있기도한 李동문은 東大門·中央·乙支路支店 次長등 一線점포경력을 많이 쌓아온바 있다。

陳동문◇

▲陳宗龜(63경제)=春川지점개설준비위원장으로 榮進。적극·활동적이며 매끈한 對人관계로 영업파트에서 수완을보인 陳동문은 본점 영업부차장、여의도·덕수지점차장등을 역임했으며、한때 전국금융노조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정교과서 企劃室長영전

鄭福溶동문

◇鄭동문

鄭福溶(60정치)동문이 국정교과서(주)기획실장으로 영전했다。

鄭동문은 同社 영업과장、직업훈련소장등을 역임했으며、국정교과서 東友會간사장으로 활약해오기도 했다。

장。서울 JC외무부회장、JCI외무부회장등으로 한국JC발전에 앞장서온 李동문은「국가미래의 간성들인 青年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키고 對外이미지 부각에전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피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등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李동문은 제과업 대메이커인(주)뉴욕제과 대표이사로 있다。

「教育특별공로상」수상

김 성 배동문

◇김 동문

김성배(51국문·모교 사범대학 교수)동문이 지난 10월30일 대한교육연합회의 교육공로장 시상식에서 교육자 학자로서는 최고의 상인「교육특별 공로상」을 받았다。

김동문은 평생(40여년간)을 한글전용교육과 국어교육의 발전을위하여 헌신하였고 교육계및 학계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와 이번영예의「특별공로상」을받았다。

「경찰의날」勤政勳章받아

紅條훈장 李永昶동문
綠條훈장 金大圓동문

◇李 동문

◇金 동문

지난10월21일로 36돌을 맞은「경찰의날」기념식에서 李永昶(58법학·치안본부수사 2과장)동문이 紅條근정훈장、金大圓(70경행·종로서정보2과장)동문이 綠條근정훈장을각각 수여받았다。

紅條근정훈장을 받은 李동문은 경찰간부11기로 용산서장 서울시경정보1과장경찰대학부학장등을 역임해온등 20년여를

1 월4일까지 美國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미국作物學會에서「소맥의 분지성 유전」이라는 논문발표를 위해 25일 出國예정。

榮進·轉輔

▲鄭在皓(62정치)=한국주택은행 신용조사부 신용조사과장으로。

▲安正基(66정외)=경향신문관리국사업부장대우로 승진。

▲許應澤(73경영)=삼연유지(주)영업부로。

▲李春滿(73식공)=한국일보 광고국에서 부산일보 광고국課長으로。

▲金珍洙(81정외)=동화증권 중부지점으로。

▲沈教俊(78경영)=(주)金星社 마케팅본부 판매기획과장으로 승진。

出入國

▲崔載九(52국문·본회명예회장)=지난17일 日本의 불교계초청으로 渡日、약2주일간 체류예정。

▲柳周馨(57농학·대성모방회장·본회부회장)=11월7일부터 2주일간 日本 홍콩 싱가포르등 東南亞섬유시장을 살펴보고 귀국。

▲禹國一(78행원·본회副會長·한국보험공사부사장)=10月24~11月8日까지 日本 홍콩 대만 필리핀 泰國등 동남아제국의 보험제도및 업계를 살펴보고 귀국。

▲金銘善(61경제·동진직물사장)=11월7일~18일까지 10일간 日本의 직물업계 시찰및업무협의를마치고 귀국。

▲李範宣(49전문·외국어대 교수·소설가)=10월31~11월12일까지 대만문화·예술및학계를 둘러보고귀국。

▲宋熙鍾(64상학·전대륙건설상무이사)=지난11월1일 미국이민차 출국。주소는 46-01 39th Ave APt517 Sunny SideN.Y 11104 U.S.A.

▲金斗煥(49전문·在美판 아시아(주)사장)=사업관계로 모국에 일시 들렀다가 지난10월25일 출국。金동문은 지난10월22일 시내 풍년각에서 열린 혜동회 총회에 참석코 오랫만에 동기들과만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즐거운 정담을 나누기도했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을 모교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동창들앞에서 굳게 다짐하기도 했다。

▲李喜春(49전문·하이얏트호텔사장)=11월11~20일까지 10일간 日本·佛·英國등 선진각국의 호텔및 관광업계시찰。

▲南光朝(53경제·남선직물대표)=11월4~24일까지 20일간 日本 홍콩 태국 대

新刊소개

「韓國古典小說研究」
金起東동문

金起東(52국문·모교 문리대교수)동문이 國文學研究書「韓國古典小說研究」를 펴냈다。

이 책은 金同門이 30餘年을 연구해온 現存하는 古典小說 3백여편을 총정리하여 집대성한 것으로 특히 필사본으로서는 世界最長의 소설이라 할수있는 1백80권 1백80책 원고지 3萬여매에 달하는「玩月會盟宴」등이 수록되어 있다。

「韓國文學概說」
徐楠春동문

徐楠春(52국문·경기대국문학과장)동문이「韓國文學概說」을 펴냈다。

한국민족·한국문학·한국문학의전개·詩歌·소설·수필·희곡·한문학·현대문학등 全9장으로 구성된 同책자는 우리文學을 이해, 접근할수있는 개설서로서 부록으로 한국문학年表를 수록하고있다。<同和文化社刊·5천원>

「漢文學概論」
李鍾燦동문

李鍾燦(60국문·모교 문리대교수)동문이 한문학의 각론을 종합정리한「漢文學概論」을 펴냈다。

「漢文學이란 무엇인가」하는 것을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이 책은 산문과 원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엮었으며, 시론, 시경, 사부, 악부, 고시, 근체시, 등 한문학 전반에 걸쳐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이 책은 한문학에 대한 이론서가 부족한 우리 학계실정에 비추어 대학교재로서는 물론 한국문학의 연구를 위해서도 좋은 지침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二友出版社刊 4천 8백원>

코스모스 앞에서」
具慶書동문

시인 具慶書(49전문)동문이 제6시집「코스모스앞에서」를 엮어냈다。

시단의 중진이며 1978년 韓國文學賞을 수상한바있는 具동문은 耳順을바라보는 年輪에서 이詩集을 펴낸 소감을「시인은 제각기 자기나름대로의 개성의 목소리가 있기마련이다。그목소리는 우주의 영혼과의 대화만이 있을수있는 것이다」라고 피력하고있다。<문학참조사刊·2천5백원>

「종이로만든 마을」
韓相範동문

헌법학자이며 수필가인 韓相範(58법학·모교법정대교수)동문이 수상집「종이로만든마을」을 내놓았다。격변하는시대의 길목에서 고통하는 한지성인의고뇌를통하여 현대인의 어둠과아픔을 신선한 지성과양심의 목소리로 파헤치고있는 이책은 제1부「이시대를보는눈」제2부「사람노릇, 바로사는길」외에「산업사회를 살아가는모습」「픽션을통해넌픽션의 세계를 본다」등으로 꾸며져있다。<서래헌刊·2천5백원>

2주일간 신병치료차 서울대학 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고 퇴원。

▲成正基(51정치·前풍전화섬(주)사장)=신병치료차 중앙대성심병원에 3개월동안 입원했다가 지난10월말 퇴원。

▲朴忠煥(59경제·공인회계사)=학교법인 東國學院감사로 활약중인 朴동문은 지난10월19일부터 3주간에 걸쳐 동국학원산하 初·中·高大學 경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작성및 회계지도를특강。

▲李根載(81회계)=시내충무로5가 버스정류장뒤 삼일빌딩1층에다「동방서적」을 지난9일자로 개업。同서점은 대학전문서적、일반서적、중고서적、월간지등을취급하고있다。

訃音

趙演鉉 文協이사장急逝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며 東國文壇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趙演鉉(41혜전)동문이 부인과함께 東南亞를 여행중 지난24일 아침7시5분 日本東京마이엠호텔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향년61세。

문학평론가로 모교교수·한양대교수등을 역임했던 趙동문은 30년대후반부터 詩同人誌「芽」「詩林」등에 관계하면서 시와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民國日報등 언론계와 학계, 그리고 文協이사장 藝倫위원장 藝術院회원등 文化界에서 폭넓게 활약한 趙동문은 63년 대한민국 문화포상、65년 대한민국문예상、66년 예술원상、70년 국민훈장 동백장、72년 3·1문화상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문학과 사상」「한국현대문학사」「趙演鉉文學全集」(전6권)등 30여권이있다。

鄭世鉉모교財團理事 별세

학교법인 東國學院이사 鄭世鉉(57·사학)동문이 지난10월16일 오후4시 高麗병원에서 숙환으로별세했다。향년 50세。

숙명여대 문과대학장、불교신도회부회장등도 역임한 故人은 지난 76년부터 본회추천 모교재단 이사로 활약、동문발전을 위해 크게 헌신해 왔었다。

학계에서는 東洋史의 권위로 알려진 鄭동문은「한국학생운동사」「중국근대민족운동사」등의 저서를 남겼다。미망인 許博子여사와 一男一女의 유족이있다。

永訣式은 지난10월18일 오전 淑大교정에서 淑大文理大葬으로 엄수되었다。

▲徐廷柱(39中佛·시인·모교명예교수)=11월 초 동작구 사당동자택에서 모친상。

▲高炳鉉(59경제·국회의원)=11월6일 성동구행당동 자택서 모친상。

▲金容喆(60국문·동아일보편집국장)=11월13일 도봉구쌍문동 자택서 부친상。

▲李衍澤(61법학·국무총리행정조정실제1조정관)=11월12일 전주시노송동 자택에서 부친상。

▲沈春燮(61政·월간「공해와 개발」발행인)=11월 초 자택에서 부친상。

단결

永久不變 同窓會 萬

國會議員 金遺腹 <51정치>

國會議員 李英駿 <59법학>

國會議員 高炳鉉 <59경제>

國會議員 林德圭 <60법학>

國會議員 孟殷在 <61정치>

國會議員 朴翊柱 <61정치>

國會議員 愼順範 <61정치>

國會議員 金榮龜 <62경제>

國會議員 李元範 <66행정>

東友會 스크린

東女會

東女會—。이름 그대로 東國이 배출한 여학사들의 친목모임이다。六萬여 동국인중 여자동문은 줄잡아 6천여명정도。동녀회는 정확한 회원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할정도로 단절과 재건작업을 반복해오고 있는데 여학생수가 현저히 증가를 보이고있는 70년대부터 그활동이 점차활기를 띠기시작했다。

◇1961년발족

동녀회의 발족은 1961년 가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당시까지 여학사수는 1백여명정도 된걸로 기억들하고있다。

尹乙順 安채蘭 鄭姙順 白恩順동문등을 주축으로 시내 和信다방에서 졸업반 입회환영회를 연것이 바로 창립총회가 되어버렸다（이때 시작한 東女會입회식은 지금까지 하나의 전통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지만…）

비록 창립총회에 나온 졸업생숫자야 18명에 불과했지만 친목도모와 우수한 후배양성을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해야한다는 취지는 전체의 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취지달성을위해 먼저 회장단을 구성했는데 초대회장엔 尹乙順、부회장에 安채란、총무엔 鄭姙順동문이 뽑혔다。

◇活性化된 조직

초대회장단은 본래취지대로 장학금 모금에 착수、마침내 64년도에 東女會최초의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3~4년지급해온 이사업은 東女會뿐만아니라 모교당국·동창회사회에서도 고무적인 뉴스가되었다。

이어2대회장단이 들어선것은 68년의 일이었다。회장에 孫興珠、총무에는 金順媛동문이피선되었다。두사람은 매월 친목회개최를 통해 회원상호간의 이해와 회원경조사 상부상조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또 70년에 들어선 3대회장단으로 회장에 鄭姙順、부회장에 金貞愛、총무에 金政子동문이 선임되어 침체되었던 조직을 活性化시키는데 정열을 쏟았다。우선 東女會의 권위를 찾는다는 뜻에서 東女會長이 지난74년부터 본동창회 부회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尹乙順고문

◇安채란고문

◇鄭姙順고문

◇朴桂山후원회장

◇洪淑子명예회장

◇金貞愛회장

또 적어도 東女會회식에만은 많은 회원들이 나와 후배들을 환영、격려하자는 바람이 일기 시작한것도 이무렵이다。

그러나 선배와 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기엔 재정과 人力이 부족하기만 하였고、회의는 임원宅을 순회하며 가진 이사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桂山舘건립 慶事

졸업생수가 증가하고、또 본부동창회의 활발한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1千萬원 基金 조성계획

女學生會舘 건립 꿈이뤄

위해 東女會도 재건을위한 自省의 소리가 높아졌다。그것은 鄭姙順회장의 오랜 와병으로 공백이 점차 커졌기때문이었다。東女會는 우선 조직의 리더는 활동력이 있고 사교적이어야 한다는데의 견을 모으고 79년4월제4대 회장으로 외교관출신의 여성지도자 洪淑子동문을 선출하기에 이르렀다。또 부회장에는 金貞愛 金政子 李永子동문을、총무에 吳明根、회계에 全英淑동문을 각각선임하고 再起에 안간힘을 썼다。

이당시는 너나할것없이 東女會발전을 위해 헌신하자고 다짐하고 우선 계를조직、기금을 모금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東女會는 장차 女學生회관이라도 건립할 꿈을 키웠으나 계돈을 가지고 東女會의 숙원을 이루기엔 너무 지루하고 힘겨운 상황이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재력이 있는 여성사업가 朴桂山동문이었다。同임원들은 이 朴동문을 방문하여 女學生회관 건립안을 설명하고 십시일반 협조를요청했던 것이다。그러나스케일이 큰 朴동문은 기왕 뜻이 그러하다면 「혼자 맡겠다」고 나서기에 이르러 여학생회관은 계획보다 빨리、예상보다 쉽게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건물기증자인 朴桂山동문의 이름字를 따와 桂山館으로 명명된 女學生館은 마침내 지난80년 9월30일 역사적인 개관테이프를 끊고 명실공히 여학생들의 교양활동 요람으로 새 포부를 열게되었다。

이후 東女會는 각종모임을 자신들의 집인 桂山館에서 열어옴으로써 他동우회의 부러움을 받고 있기도하다。

◇基金조성 박차

東女會가 해야할일들은 그러나 다 끝나지 않았다。

지난5월 金貞愛동문을 제5대회장으로 출범시킨 東女會는 自體조직 정비로 먼저참여도 고취에 안간힘을 써오고있다。

그 일례가 매월1회씩 임원회를 통해 우선 임원부터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東女會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자는것。

그래서 東女會는 명년부터 1천만원 목표의 장학기금 모금계획을 세우고있는가하면、동문찾기운동과 주소록제작등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원도 대폭 보강하고 있는데 고문에 尹乙順 安채란、鄭姙順 명예회장에 洪淑子 후원회장에 朴桂山동문、부회장에 禹順伊 朴賢嬉 具紀子 金文子 白京男 金政子、총무에 權賢眞、조직 洪月杓、기획 鮮于明子、재무 全英淑、서기朴鎭淑동문등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社會진출미약

그러면 여성동문들의 사회진출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편파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여성은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一部는 사회인·직장인으로서 근면·성실성을보여주고 있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지만…

東女會회원의 대부분의 직장은 교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특히 미혼동문이 대부분인 것은 앞서 말한 사회의 패쇄성때문。

활동여성으로는 洪淑子동문이 민주사회당 부총재와 한국여성지도자협의회 부회장등을 맡고 있고、강단에 서고있는 동문으로는 尹乙順 李永子 白京男 신현숙 강윤자 최문경（한양대）등 손가락으로 꼽을정도。

중고교장으로는 安채란 등 2~3명、실업인으로는 朴桂山 禹順伊 朴賢嬉동문이 있다。

또 文壇에서는 宋媛熙 柳惠子 李菊子 安養子 文貞姬 吳貞亞등이 활약하고있다。그밖에白恩順（유치원장）、노미숙（産銀）등의 활약도 돋보이고있다。

◇權賢眞총무

◇朴鎭淑서기

시즌오프 運動部 戰績결산

레스링·복싱부도 수확짭짤

勝負기대보다 支援先行을

野球 春·秋季리그 強勢보여

전국體典 우승으로 체면유지 농구

蹴球 추계연맹전 準優勝 따내

81년이 간다。81년시즌 大學스포츠가 대부분 막을내렸다。금년에 모교운동부는 과연 얼마만큼 東國의 聲價를 높였는가? 금년도 각부전적은 예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전적을 올린것이 사실이다。그러나 東國人에게 頂上에 군림했다는 긍지를 심어주기에는 아직일렀다。모교 체육부（부장＝羅彦杓）에서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각 운동부의 전적을 결산해본다。

한마디로 금년은 東國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와 코트에서 지성과 젊음을 맘껏 발산한 한해였다。

아마츄어정신을 꽃피워야 할 대학스포츠가 校勢의 척도기준에 휘말려 스카웃에서 부터「過熱·過慾」이란는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엄하다。

그래서「무슨경기든 出戰하면 꼭이겨야한다는」각오와 기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금년의 종합전적은 球技종목의 경우 야구부와 축구부가 우승문터에서 고배를 드는 不運을 안았으나 농구부는 전국체전 우승으로 체면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野球部

금년도 야구부의 최고전적은 춘계 대학연맹전 준우승을 들수있다。

지난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벌어진 春季연맹전 예선전에서 모교는 경희대에 4대2、영남대에 8대5、한양대에 1대0、인하대에 10대4 勝등 4승1무1패로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결승전서도 모교는 예선리그에서 대파시킨바있는 인하대를 3대2로 꺾은뒤、고려대와 한판승부를 벌였으나 力不足으로 13대7로 준우승에 그쳤다。

그러나 모교는 곧바로 열린 부산시장기대회에서 敵手 고려대를 꺾어 6일만에 춘계연맹전 결승전에서의 분패를 설욕하고 응원나온 釜山동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추계연맹전에서도 모교는 상위권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영남대에 5대2、연세대에 4대1、경희대에 5대2、중앙대에 2대1、단국대에 8대1、인하대에 1대4로 예선전적 5승1패로서 B조 수위를 마크했다。하지만 최종전적은 3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모교는 금년도 통산 6개대회를 통해 리그전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토너먼트경기에서는 초반에 탈락하는 불운을 면치 못했다。그것은 한마디로 저력은 있지만 막강한 팀컬러로는 아직 이르다는 뜻이다。「스카웃의 열세를 맹훈으로 커버해오고 있다」는 裵星瑞감독의 말은 東國야구의 앞날을위해 결코 흘려버릴수만은없다。

◇축구부

금년도 축구부종합전적은 추계대학연맹전 준우승、서울시종별선수권대회 준우승을 꼽을수있다。

금년초에 국제심판이며 국가대표선수를 지낸 李偶奉코치를 새로맞이한 축구부는 기본技習득과 체력연마에 열중해왔다。

특히 추계대학연맹전준우승은 지난70년의 대학선수권대회우승과 73년의 가을철연맹전 준우승에 이어 오랫만에 정상다툼의 好機였다。그러나 하필단국대에 졌다는데 관심있는동문、재학생들에게 준우승을하고도 큰 실망을 안겼다。

한편 축구부는 일본國士館대학초청 日本원정대회에서 5전4승1패를기록、東國축구의 전재함을 과시했다。

◇농구부

농구부는 제62회전국체육대회 대학부 우승으로 전국대회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비록 연세 고려대등 강호가 불참하긴 했지만 당당히 서울대표로 출전、우승기를 안은것은 特記할만하다。

지난4~5月의 종별선수권대회와 추계대학연맹전에서 3위를 차지하는등 농구부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난것은 吳雲煥코치의 숨은 노력과 슛타임이 빠른 골게더林眞浩의 수훈에 힘입은바 크다。

농구부는 일본大東文化大學초청 원정경기에서 7전5승2패의 좋은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레스링부

모교레스링부는 崔圭哲코치의 경주대학 專任전출에 따라 裵基烈동문이 이끌어오고 있는데、上位그룹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다。

모교는 梁正模올림픽제패기념KBS배쟁탈 전국레스링대회와 전국대학아마츄어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단체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별 성적을보면 손민규 박진규 이상백군등이 KBS배쟁탈전서 우승을 차지했으며、아마선수권대회에서는 이상백 김영남 함덕원 정용균군이 1위、윤경재 김동철 김수환군이 2위、임성수군이 3위로 입상했다。

또한 세계아마츄어쥬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파견선발전에서 윤경재군이、세계아마츄어레슬링선수권대회파견 최종선발전서는 김영남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레슬링부도 선수부족으로 한국체육대학등에 패권을 빼앗기고있음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다。

◇복싱부

복싱부는 黃哲淳 金貞喆동문의 공백을 신인 정용범（웰터급）군이 전국체전 은메달、韓中친선복싱대회파견 최종선발대회 우승등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그리고 아마츄어는 아니지만 黃忠載군이 東洋·太平洋참피언 자리를 8차례 방어해오고있는것은 큰자랑이 되고있다。

○ ○ ○

이상에서 본것처럼 모교운동부는 크게 재미도 못보았지만、그렇다고 부진했던 70년대처럼 크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것만도 아니다。오히려 이제는 여건만 보완된다면 頂上도 멀지않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교는 현재 대부분의 선수들을 체육관옆 선수합숙소에 수용、과학적이고도 체계있는 선수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들을 격려하기위해 동창회장단에서는 매년초에 선수합숙소를 방문、과일·고기등을 제공하거나 회식초청으로 선수들을 격려해오고 있으며 ―部동문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식、또는 선수용품을 제공해오고 있다。

또 재학생들은 선수위안의 밤을 열어 격려하고 있다。뿐만아니라 축구부는 축구후원회가、야구부는 야구후원회가、농구부는 농구후원회가 각각 결성되어있어 선수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해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당국이나 동문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이는 체육부의 전적이 내년에도 크게 개선될전망은 없다。

年會費 납부자 名單

◇個人납부분

▲權連玉（73행원）＝2만원
▲權五一（57법학）＝5천원
▲李聖馥（65상학）＝6천원
▲成道永（80경원）＝5천원
▲安秀炳（60법학）＝〃
▲具本泓（58국문）＝〃
▲鄭 溶（61정치）＝1만원
▲姜畿遠（49전문）＝〃
▲朴泰述（64경제）＝5천원
▲姜國中（74행원）＝〃
▲김금년（　　）＝〃
▲李澤仙（75무역）＝〃
▲金宗勉（69행원）＝〃
▲姜弼遠（59정치）＝〃
▲李光承（65식공）＝〃
▲안정희（81행원）＝〃
▲李瑞行（71철학）＝1만원
▲姜炳燦（78행원）＝5천원
▲金鎭甲（65법학）＝〃
▲金鍾浚（51경제）＝〃
▲朴性奎（78체교）＝〃
▲안정신（　　）＝〃
▲趙炳默（66임학）＝〃
▲趙昌元（57경제）＝〃
▲朴 敬（81가정）＝〃

◇단체납부분

■국회동우회＝
（회장＝金殷夏）
15만5천원（31명분）
小計 30만6천원
누계 1백47만4천9백92원

理事會費 납부자 名單

◇常務理事會

▲安秉浩（79경원）＝20만원
▲金榮煥（62경제）＝20만원
▲柳根昌（49전문）＝20만원
▲朴三善（55법학）＝20만원
▲朴桂山（77행원）＝20만원
▲禹順伊（59정치）＝20만원
▲金在基（60경제）＝20만원
▲朴埈亨（63경제）＝20만원
小計＝1백60만원
累計＝2백85만원

◇理事會費

▲李正路（62경제）＝5만원
▲金鍾一（58법학）＝〃
▲李俊邦（79행원）＝〃
▲宋容雲（71행정）＝〃
▲朴養源（48전문）＝〃
▲李鍾國（57영문）＝〃
▲崔致根（52국문）＝〃
▲朴翊柱（61정치）＝〃
▲朴忠一（62법학）＝〃
▲金東吉（61경제）＝〃
▲印丁一（72행원）＝〃
▲咸泳旭（58정치）＝〃
▲金容聖（63정치）＝〃
▲吳鎭模（61법학）＝〃
小計 70만원
累計 1백86만원

廣告料 납부자 名單

▲朴忠一（63호）＝1만원
▲安秀炳（61호）＝2만원
▲姜畿遠（65호）＝2만원
▲金北喆（63호）＝1만원
小計6만원
累計35만원

會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會費안내

▲年會費：年5천원以上
（영구회비 5만원以上）
▲理事會費：年5만원
▲常務理事會費：年20만원
▲監事會費（재단판견 임원포함）：年50만원
▲會長團分擔金：年100만원

＜회비 납부방법＞

①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로 불입。
②國民銀行 온라인口座（068—21—0011—944윤천영）이용
③본회 사무국（전화 267—8568번）으로 直納，또는 연락주시면 訪問접수합니다。

會報구독안내

아직 회보를 받아보지 못하고있는 동문께서는 동창회사무국（267—8568）으로 연락주시면 곧바로 보내드리겠읍니다。

慶州大 중앙圖書館 기공

82年末 완공、31억投入

경주대 綜合建設 4단계 工事

慶州大종합건설계획의 4단계 大役事가 되고있는 中央圖書館기공식이 지난 10月31日 인문사회학관앞에 위치한 건설부지에서 鄭在覺총장을 비롯、건설 실무진、각기관장、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지난79년 人文사회학관이 경주대 첫건물로 착공된후 한의학관、기숙사에 이어들어서게될 이번 도서관건물은 오는 82년12월말 준공예정으로 지하1층 지상4층에 연건평 3천6백36평의 메머드건물로서 약31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된다.

경주東國人들의 지성과 학문의 寶庫가될 도서관의1층은 書庫로、지상4층은모두 열람실로 사용하게되는데 외국의 각대학도서관을 답사、설계함으로써 초현대식시설을 자랑하게된다.

同건물은 철근콘크리트、라멘드조 구조로 건물前面은 벽돌로 장식하고、1층바닥은 화강석으로 꾸밈과 동시에 완전韓式기와로 지붕을 이루게되며 냉방과난방이 동시에 작동되는 최신 공기정화설비등도 갖추게된다.

寄宿舍 竣工돼

慶州大 新學期부터 수용

慶州大學기숙사 준공식이 지난20일 오후2시 朴淇宗이사장과 鄭在覺총장을 비롯、건설관계인사및 교직원 학생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지난 1월에 착공、이날 준공을 본 기숙사는 4동의 본건물과 1동의 부속건물로 되어있는데 본건물에는 1백97개의 방에 6백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게된다. 부속건물은 식당을비롯 세미나실 휴게실 이발소 세탁소등 학생복지를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있다.

技術考試 1차5명

지난11월14일 발표된 81년도 총무처시행 제17회기술고등고시 1차시험에 모교에서는 5명이 합격、11월16~19일까지 시내 한성대학에서 2차시험을 치렀다.

추계농구 3位

시즌 上位팀에 浮上

모교 농구부는 지난 11월8일 장충체육관에서 폐막된 제18회 추계대학농구연맹전에서 연대·한대에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번대회에는 모교를 비롯 대학강호 10개팀이 참가、AB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거친뒤 상위2개팀이 결승리그에 올라 다시 풀리그로 순위를 결정했다.

레스링부 2位

金메달4개등 따내

모교 레스링부는 지난7·8양일간 모교 체육관에서 열린 全國大學아마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전체20개체급중 12체급 14명이 출전하여 金4、銀3、銅2개를획득、韓國體育大學에이어 단체2위를 차지했다.

엘람·K·허츨러에 명예哲博학위 수여

母校는 지난10월29일 美연방교육성 수석 보좌관인 엘람·K·허츨러씨에게 명예 哲學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현재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겸임하고있는 허츨러씨는 10월28일 문교부에서체결한「韓美 양국 정부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의 미국측 수석대표로 來韓、각서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新羅文化의 再照明」

新羅文化研 제1회 심포지움열어

경주대부설 新羅文化研究所(소장 金廷鶴)주최 제1회신라文化심포지움이「신라문화의 再照明」이라는주제로 지난10월31일 경주대 人文사회학관에서 열렸다.

鄭在覺총장및 申宗淳경주대학장을비롯 국내학자·재학생등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黃壽永(모교대학원장)교수가「萬波息笛說話의一考察」、李基白(西江大)교수가「불교에있어서의 孝관념」、張忠植(모교불교대)교수가「塼塔系 石塔의 고찰」、金廷鶴(경주대)교수가「新羅史연구의 제문제」에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3千5百명 受惠

2학기奬學金支給현황

母校 81학년도 2학기장학금 지급현황은 총77종에 수혜인원 3천5백20명、지급액 7억1천5백10만9천5백원(대학원및 경주대포함)으로 밝혀졌다.

이중 교내 장학금은 수석장학금외 24종으로 7억3천1백3만9천5백원이 지급되었고、교외장학금은5·16장학금외51종에 8천4백7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白象體典

法政大가 우승차지

개교75주년기념 白象체전이 지난 10월28일 雨天에도 불구하고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열띤 경합속에 열린 이번 체전에서 영예의 종합우승은 법정대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농과대로 돌아갔다.

經大院 축구우승

전국特殊大체전서

母校 經營大學院이 지난 10월25일 열린제8회 全國특수대학원 체육대회 축구종목에서 우승을차지했다.

중앙大에서 열린 이번大會는 全國에서 12개 大學院이 참가했다.

「杜詩諺解」5百周기념강연

演士에 李丙疇박사

石田李丙疇(51 국문·모교교육대학원장)박사의 회갑을 기리기위한 東岳語文學會·李丙疇선생周甲紀念論叢위원회주최의「杜詩諺解刊行5백주년기념강연회」가 오는 11월28일(土)오후3시 모교 학림관小講堂에서 열린다.

1481년12월상순에 간행된「杜詩諺解」이의 5백주년을 맞아 열리는 同강연회는 甲年을맞도록 오로지 讀杜에 전념해온 李박사가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는데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강연회를 마친뒤 茶香館에서 李박사가 발행인이 되고있는 東岳語文論集 15輯등의 奉呈式과 기념연회를베풀게 된다.

「警察資質」등 다뤄

公安研、연구발표회 가져

公安行政研究所(所長=徐載根)의 연구발표회가 지난 7일 母校 교수세미나室에서 열렸다.

연사및 연제로는 徐載根(法政大 警行科)교수의「警察공무원에게 요구되는 資質」、李璜雨(〃)교수의「警察공무원의 資質향상방안」、백형조(치안본부·총경)씨의「개방체제하의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연구」등으로 발표후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行政고시 1차8명

81년도 총무처시행 제25回 행정고시 1차에 母校재학생 8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오는12월4일~7일까지 市內 한성대학에서 2차시험을치르게된다.

전체助教研修會

경주대서60명참가

82학년도 제2학기「전체助教研修會」가 河德模교무처장을 비롯한 60여명의 碩士과정 수료생및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지난7·8양일간 慶州大學에서 열렸다.

첫날 연수에 앞서 鄭在覺총장의 특강이 교수 세미나室에서 있었으며、이어서 각 부서별 실무에 관한 강의가 인문사회학관에서 실시되었다.

教大院 姜聲國金賞

현장교육研究대회

지난13일 열린 大韓教育聯合會 주최제25회「全國現場教育研究大會」에서 모교교육대학원생 姜聲國(교육행정학·2년)씨가 외국어교육분과 부문에서 金賞(문교부장관상 푸른기장수여)를 수상했다.

姜씨의 論題는「人文高等學校의 Hearing및 Speaking Ability伸張方案」.

룸비니동산에 테니스場 신설

코트2면등 年末완공 예정

모교에서는 혜화관 앞에있는 現테니스코트 자리에 5층의 대학원 건물을 신축키로 결정하고 기존하는 테니스코트를 룸비니동산으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총1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공사는 테니스코트 2면、백보오드 1개를 설치하게되며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각종學術행사 풍성

單大別·써클별로 종류다양

佛教文學강연및詩낭송회

불교대학 주최「제1회 불교문학강연및 시 낭송회」가 지난 9일 모교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서정주(詩人)모교 명예교수가 연사로 나와「불교와 문학」이라는 연제하에 강연을 하였으며、이어서 초청시인및 재학생들이 출연、시낭송을 하였다.

法大학술강연및考試안내

法政大학도호국단주최「법정대학술강연회및 국가고시 안내」가 지난17일오후3시 본관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려 국가고시합격률 제고방안등을 모색했다.

이번행사는 고시에 뜻이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閔丙夫법대학장과 黃성준동문등 고시합격자들의 경험담과 그에대한 안내강연이 있었으며 前법대학장 張경학박사의「한국인의 人事말의 규범성」이라는 연제의 강연도 가졌다.

농과대풍년제

농과대(학장=權寧大)주최 풍년제가 11일鄭총장을 비롯한 교수및 전농대생들이 참가한가운데 경기도고양군원당소재 농대부설 실험실습농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풍년제는 예년에 농학과단독으로 실시하던것을 전농대행사로 승격、개최한것이다.

工科大원흥학술제

공과대학생들의 사기앙양과 세계속의 공업한국의 주체의식강화를 목적으로한 공과대학도호국단주최 제1회「元興학술제」가 지난17일 오후1시부터 吉正天공대학장을 비롯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제는 초청연사인 高大 金貞欽교수의「세계속의 공업한국을위한 우리의 자세와 그추세」라는 강연에 이어 各학과대항「장기자랑」과「초청가수와함께」라는 시간도 마련되어 工大生들의 단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師範大교수·학생간담회

사범대교수·학생간담회가 崔世和학장을 비롯 各科학과장 담당교수 학생등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지난 11월4일 오후3시 다향관에서 열렸다.

이자리에서는 二世교육담당자로서의 師範人像정립、면학분위기 조성을위한 방안、師範人선후배간의 연계방안등에 관한 안건토의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동창회회장단에서 崔載九명예회장, 文泰植 金東正 柳周馨부회장등이 운동장까지 나와 축구부를 응원했다.

추계축구 準優勝

李容濟군은 最多득점상

모교축구부는 지난10월27일 서울운동장에서 폐막된 제17회 전국추계대학축구대회에서 준우승에머물렀다.

모교팀은 예선전에서 국민대와 1대1로 비기고 관동대에 1대0、인천체전을 6대3으로 물리쳐 준준결승에올라 금년서울시연맹전 우승팀인 강호 成大를2대1로 제압했다.

이어 준결승전에서 모교는 전국체전 준우승팀인영남대를 2대0으로 물리침으로써 오랫만에 정상꿈으로 부풀었으나 결승전서맞붙은 단대에 슈팅수에 우세를 보이고도 찬스를 살리지못하고 2대0으로 아깝게지고 말았다.

이대회에서 모교FW李容濟군은최다득점상을받았다.

한편 본회會長團에서는 이날저녁 준우승을차지한 선수·코치를 앰배서더호텔 부페식당으로불러 노고를치하、격려했다.

教授招聘公告

① 專攻分野

<서울본교>

佛教大學：東洋畵

文理科大學：英語會話，獨語學，獨文學，日語學，日文學，倫理學，解析學，應用數學，代數學，固體物理，確率및統計

法政大學：商法，刑法，社會學

經商大學：貿易理論및法規，HARDWARE시스템

農科大學：動物生理（昆蟲生理）

工科大學：實驗計劃法및信賴性工學

師範大學：教育社會學（行政），教育評價，自然地理，韓國中世史，機械體操

<慶州大學>

佛教美術實技및 古美術實技，古典文學，現代詩論，言語學，英美小說，日文學，漢詩文學，韓國中世史，民法，商法，憲法，行政法，行政計量分析，計量經濟，經濟史，貿易法規，國際貿易，人事組織論，財務，投資論，管理會計，發生學，漢方病理學，方劑學，解釋學，衣類學

② 招請人員：各專攻別若干名

③ 資格

가. 教員任用에 缺格事由가 없는者

나. 博士學位所持者 優待함

④ 提出書類

가. 履歷書（名啣判寫眞첨부）……1通

나. 學位證明書……各1通

계. 研究實績目錄및實績物（論文및著書）……各1部

⑤ 提出期間및 提出處

가. 提出期間：1981·11·15~11·30

나. 提出處：100，서울特別市中區筆洞3街26東國大學校教務處長室（登記郵送）

⑥ 其他

가. 履歷書 右側上端에 專攻分野와 電話連絡處를 朱書로 記入할것

나. 書類銓衡後 招聘豫定者에게는 個別通知하며 提出된 書類는 一切 返還치않음

※其他 詳細한 事項은 本大學校 教務處長室 (267~8569)로 問議바람.

東國大學校

각종賞牌·트로피·紀念品전문

年末年始 각종 기념품 주문은

「고려공예사」에서!

고려공예사

대표 趙光錫 (61경제)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가16 고영빌딩504호

(종로3가 지하철역옆)

전화：765—4471

卓上日記는「玉興標」!

玉興商社

대표：玉喆洪 동문

姜鐵遠 동문

堅固·간편·美麗·實用的이고 녹이슬지않는 永久品으로 다양한 규격구비

注文處：서울·동창회사무국 267—8568

대구·옥흥상사 (053)92—2787~8

1982학년도 東國大學校 신입생募集요강

서울本校

1. 모집구분및 인원

대학	대계열	소계열	학과	졸업정원	모집인원	일반전형	특별전형(실업등계)	야간강좌전형인원	비고
불교대학	인문	역사및철학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80	104	104			계열별
	예체능		미술학과	40	52	52			학과별
문과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40	52	52			학과별
			영어영문학과	100	130	130		50	
			독어독문학과	30	39	39			
			일어일문학과	30	39	39			
			사학과	30	39	39			
			철학과	30	39	39			
			국민윤리학과	40	52	52			
	자연		수학과	40	52	52			
			물리학과	40	52	52			
			화학과	40	52	52			
			통계학과	40	52	52			
	예체능		연극영화학과	30	39	39			
법정대학	사회	법정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116	151	151			계열별
			경찰행정학과	34	44	44			학과별
			사회개발학과	40	52	52			학과별
경상대학	사회	경제·무역	경제학과 무역학과	210	273	273		133	계열별
		경영·회계	경영학과 회계학과	260	338	321	17	186	계열별
	자연		전자계산학과	120	156	156		80	학과별
농과대학	자연		농학과	30	39	37	2		학과별
			임학과	30	39	37	2		
			농업생물학과	30	39	37	2		
			농업경제학과	30	39	39			
공과대학	자연		전자공학과	40	52	49	3		학과별
			전기공학과	30	39	37	2		
			토목공학과	40	52	49	3		
			건축공학과	40	52	49	3		
			화학공학과	30	39	37	2		
			식품공학과	35	46	44	2		
			공업경영학과	90	117	117		60	
사범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40	52	52			학과별
			국사교육과	50	65	65			
			교육학과	40	52	52			
			지리교육과	40	52	52			
	자연		수학교육과	45	58	58			
			가정교육과	40	52	52			
	예체능		체육교육과	40	52	47	5		

※야간 강좌 개설학과

문리대학, 영어영문학과, 경상대학 경제무역계열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회계계열 (경영학과, 회계학과) 및 전자계산학과, 공과대학 공업경영학과

2. 응시자격

가. 고등학교졸업자 (졸업예정자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자로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거친자

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다.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편입학하여 졸업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3. 전형방법

가. 인문·사회계및 자연계 학과의 전형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및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다음의 비율로 배점하여 전형한다.

慶州大學

대학	대계열	소계열	학과	졸업정원	모집인원	일반전형	특별전형(실업등계)	비고
경주대학	예체능		불교미술학과	40	52	52		학과별
	인문		국어국문학과	100	130	130		학과별
			영어영문학과	100	130	130		
			일어일문학과	50	65	65		
			중어중문학과	40	52	52		
			한문학과	40	52	52		
			국사학과	60	78	78		
	사회	법정	법학과 행정학과	120	156	156		계열별
		경제·무역	경제학과 무역학과	175	228	228		
		경영·회계	경영학과 회계학과	175	227	216	11	
	자연		환경조경학과	40	52	52		학과별
			한의예과	80	104	104		
			수학교육과	40	52	52		
			가정교육과	40	52	52		

구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합계
비율	70%	30%	100%
점수	340점	145·7점	485·7점

나. 예·체능계학과의 전형

대학입학 학력고사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및 실기고사성적을 다음의 비율로 배점하여 전형한다

구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실기고사성적	합계
비율	20%	30%	50%	100%
배점	340점	510점	850점	1,700점

1) 서울 본교 미술학과 (전공 : 서양화, 동양화, 조소, 불교미술) 의 실기고사는 공통실기와 전공실기로 구분하며, 공통실기는 모두 석고 뎃상으로 하고 전공실기는 서양화전공 수채화, 동양화전공 채색화, 조소전공 조소, 불교미술전공 정밀묘사로 한다. 경주대학 불교미술학과의 실기고사는 공통실기와 선택실기로 구분하며, 공통실기는 석고뎃상으로 하고 선택실기는 수채화, 채색화, 정밀묘사중 택일한다. 실기고사의 성적은 공통실기 400점, 전공)불교미술학과는 선택) 실기는 450점으로 배점한다.

2) 연극영화학과의 실기고사는 화술, 연기, 용모, 감정테스트및 예능상식으로 한다.

3) 체육교육과의 실기고사는 일반체능고사와 기능고사로 한다.

다. 복수지원및 지망의 범위

1) 복수지원 : 본 대학교내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2) 복수지망 :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 구분, 동일계열에 한하여 제 3 지망까지 허용한다. 예·체능계의 복수지망은 허용하지 않는다.

4. 원서접수기간및 장소

●서울본교
1) 원서교부 : 1982년 1월 7일(목) ~ 1월13일(수)
2) 원서접수 : 1982년 1월11일(월) ~ 1월13일(수)
3) 교부및접수처 : 서울시중구필동 3가26번지 동국대학교 교무과

●경주대학
1) 원서교부 : 1982년 1월 7일(목) ~ 1월13일(수)
2) 원서접수 : 1982년 1월11일(월) ~ 1월13일(수)
3) 교부및접수처 : 경북월성군현곡면금장리 동국대학교경주대학 교학과

5. 전형일시(서울본교·경주대학 동일함)

가. 예·체능계실기고사
1) 대상자예비소집 : 1982년 1월14일 (목) 오후 2시
3) 비공동관리학과실기고사 : 1982년 1월15일~16일
3) 공동관리학과실기고사 : 1982년 1월15일~21일

나. 전체예비소집 : 1982년 1월21일 (목) 오후 2시

다. 전체전형 (면접) : 1982년 1월22일 (금) 오전10시

6. 합격자발표 1982년 1월28일 (목) 오후 4시

7. 2차전형응시확인증 발급 1982년 1월29일 (금) ~ 1월30일 (토)

8.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매

9. 전형료

가. 원서대 : 1,500원

나. 전형료 : 인문·사회계및 자연계5,500원, 예·체능계 7,500원

10. 장학금

가.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특별장학금, 총장장학금, 우수장학금

나.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동창회장학금, 개교기념장학금, 동국장학금, 재직동문회장학금, 물리학과장학금 농학과장학금, 경영학과장학금, 농업생물학과장학금, 축산장학금

다. 학외 육영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산학협동장학금, 5·16장학금, 원호장학금, 3·1문화장학금, 한서장학금, 아산장학금, 동원장학금, 신라문화장학금, 영농정착장학금, 학군단장학금, 한국전력장학금, 국비장학금外 30종의 장학금이 있음

※기타 자세한 것은 본 대학교 교무과로 문의바람

동국대학교

서울본교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 TEL (267)8131~9
경주대학 : 경상북도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1707 TEL (0561)(2)0131~9